

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22, 히브리어 시, 시편, 장르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학생생활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10명에서 12명 사이에서 약 10명이 누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어쨌든 공지사항은 이렇습니다.

추가 크레딧을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제출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도 없고, 확장도 없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 중
4~5개를 얻었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그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도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논문에 대한 논평을 찾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로 수요일 시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참고 자료 섹션에 들어갈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위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 과제를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찾고 있는 내용이 없는 Matthew Henry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그 대신, 도서관, 특히 자료실에 들어서면서 대출 데스크를 지나
좌회전하면 거기에 있습니다. Randy Gawman의 책상을 지나서 가세요 .

그는 자료실 바로 안쪽에 앉아 오른쪽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왼쪽으로 가지 마세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처음 두 행에서 이리저리
바뀌기 때문에 두 번째 행인지 세 번째 행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처음 두
행에서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주석 모두에서 주석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과제 시트 뒷면에 나열한 모든 항목은 해당 시리즈에 포함되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하는 곳인 이유 중 하나는 참고실 자료이기 때문인데, 즉 참고실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아서 '아, 아무것도 못 찾았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반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선반 카트 로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동일한 자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길을 돌아보십시오.

카트를 둘러보고, 테이블을 둘러보고, 자원을 공유해보세요.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작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서관에서 해설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알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시험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밤과 내일의 복습 세션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수요일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약간 조정해야 합니다. 나 이번 수업 끝나고 바로 가야 할 회의가 있어서 1020까지 들러야 할 것 같아.

자, 그것이 사실이고 8시 수업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 일부가 9시 15분에 시작하여 1시간 30분만 수업을 받고 다른 일부만 수업을 받는 것은 실제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 시간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창은 이번에는 9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빠르면 9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8시 수업이 있으면 수업이 끝난 후 바로 여기에서 경주하세요. 그러면 10시 20분까지 갈 수 있지만 나는 그 시간까지 떠나야 해요. 만약 당신이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중 하나이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올라가서 학업 지원 센터에 가서 시간을 가져갈 준비를 하고, 내가 알 수 있도록 오늘 알려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당신에게 온갖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그것을 준비함으로써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나요? 나머지 정책은 거의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시험에는 지도가 있고, 사울에 대한 논술 문제도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시편을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앉아 있는 신자들의 연합.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아버지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관용과 신실함과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또 한 주간을 맞이할 때, 주님의 영과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감사드리며, 그것이 우리가 인지하고 반응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수요일과 시험을 준비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들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계.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기쁨, 희망, 두려움, 불안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또 다른 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쎄, 우리는 실제로 시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읽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시편을 낭독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다윗을 연구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시편 제목에 따라 모든 시편을 쓴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는 절반 정도를 썼습니다. 그 중 7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름과 사건을 다루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시편 자체를 살펴볼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David가 중요한 작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제목을 읽을 때 그들은 매우 자주 다윗에 대해 말할 것이고, 이어서 아마도 몇 가지 상황과 몇 가지 음표를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봅시다.

이런 식으로 시도해 봅시다. 아, 그래, 간다. 그러면 구약성경에는 시가 얼마나 나오나요? 야구장? 추측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반? 4분의 1? 3분의 2? 사라? 네, 3분의 1 정도인데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구약성서 또는 제1성서라고 부르는 문헌 전체를 생각해보면, 그 중 3분의 1은 시적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중에는 시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매일 또는 매주 받아들이는 것의 3분의 1을 시로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시, 특히 히브리 시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시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놀랍고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히브리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작은 질문을 해보자. 시는 왜 히브리 시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우리 문화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왜 이토록 훌륭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걸까요?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수잔나. 시, 대개 히브리 시에서 단어의 즐거움, 특히 단어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어 수가 적지만 매우 신중하게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진저.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Susanna는 특정 단어 선택을 말했는데 당신은 모호하거나 잠재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말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해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모두 꽤 잘 작동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예, 때로는 시각적 또는 본능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진실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타나는 이미지의 종류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관련될 것입니다. 이미 말했다. 종종 시에서 진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는 특이하며,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사라? 무엇이 암기하기 더 쉽게 합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시의 어떤 점이 암기하기 더 쉽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좋아요, 서양 시에서는 확실히 사실이죠, 그렇죠?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데-데-다-다-다-다-다-다, 울 종류 ~의 도움이 된다 우리가 알아내 자고, 아 그래, 뭐야? 단어 거기 들어 갔어? 잭? 네, 잠시 후에 얘기할 평행법은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테니, 꼭 외워두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암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적어도 이것에 대해 당신을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시편이나 잠언을 암기하려고 할 때, 사물의 순서에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같은 생각이 다른 단어로 표현되면 '그게 먼저였나요 아니면 다른 것이 먼저였나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습니다. 여기서 병렬성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음, 이미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잠시 후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동물이 뛰는 등의 일들이 기억에 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민감도 수준을 높여줍니다.

특히 시편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이 역사적 이야기보다 기억하기 더 쉽습니다. 가끔 역사적 서사를 외워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를 그릴 때는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반드시 운율과 리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잠시 후에 살펴보고 싶지만요.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사순절 시즌에도 딱 맞습니다.

물론, 매우 사랑받는 찬송가 중 하나가 눈에 띄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운율과 리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보세요. 설문 조사는 본다와 다른 단어입니다. 설문조사에는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설문조사의 암묵적인 의미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놀라운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awesome이라는 단어를 끔찍하게 남용해왔고, 그것이 가져야 할 의미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awesome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이로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이상의 뭔가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예수라고 말하는 대신, 비록 그것이 완벽하게 적절하더라도 우리는 영광의 왕과 영광에 내포된 모든 실제 의미를 말해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광채, 그분의 절대적인 광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광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물론, 나의 가장 풍부한 이득은 당신과 내가 우리 인간의 최대치, 일반적으로 매우 자기 중심적인 열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야, 쓰레기야. 나는 세지만 진다. 그렇다면 경멸이 쏟아지는 마지막 줄이 마음에 든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 왔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말하는 방식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노력하는 대신, 나는 경멸을 퍼붓고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즉 나 자신의 교만한 열망으로 압도되어야 합니다. 정말 멋진 스탠자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적 형태로 우리에게 매우 심오한 신학에 대한 약간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매우 심오한 신학.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운율과 리듬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 시로 옮겨갈 때 보지 않을 한 가지입니다.

가벼운 리듬감이 있고 자주 운율을 맞추지는 않아도 사용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시에는 소리가 사용되지만 고전 서양 시에서 사용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히브리 시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생각하고 있어서 시편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전도서, 그 일부, 율기 등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

사실, 예언서의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고전 서양 시와의 대조를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시에는 뚜렷한 운율과 리듬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번역 측면에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구조는 균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사운드 리듬과는 반대되는 거의 개념적인 리듬입니다. 이것은 개념적 리듬이다.

따라서 균형, 대칭 및 아이디어는 Zach가 우리의 매우 중요한 병렬성 개념에 대해 말한 내용을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가 병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듣기와 쓰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첫 번째 줄에 표시된 내용은 두 번째 줄에서 다시 지정됩니다. 이는 동의어 병렬 처리인 동의어로 다시 기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줄이 있지만 여기에는 그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진술이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그 세 가지에 대한 세 가지 정의나 설명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텍스트를 갖고 계시다면 제가 뽑아드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총알이 아니라 네 번째 총알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단순히 그렇게 당신에게 총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훨씬 더 복잡해지며 다른 형태의 병렬 처리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와서 지혜 문헌을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그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주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동의어 병렬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엄매인 것을 끊고 그 족쇄를 벗어 버리자. 멋지지 않나요? 사슬과 족쇄는 구속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입니다.

물론, 부수고 던지십시오.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느니라. 이것은 항상 하나님을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일종의 충격적인 생각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들을 비웃고 비웃는다. 평행법의 동의어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꾸짖으시고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선 각각은 첫 번째 선의 점을 흠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로 동의어 병렬 처리의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시편 한 편만 백업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쉽게 볼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 어느 정도 보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편 1편의 마지막 줄인 6절은 대조 평행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그것이 하는 일은 마지막 절이 이전에 있었던 더 큰 진술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요약문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의 길은 멸망할 것입니다. 반대 병렬성.

우리는 시편에서 대조되는 평행법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잠언에서. 잠언, 특히 10장부터 15장에 이르면 우리는 서로 반대되는 평행법을 차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공부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배움, 삶에 대해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극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진실, 거짓, 기쁨, 절망.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정반대입니다. 종합적 평행법은 시편 1편의 첫 부분에 아주 좋은 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각 줄이 주제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추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점점 더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측면은 문제가 되는 것들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번영한다.

당신은 전체 그림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와 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음 두 구절, 4절과 5절은 악인이 아닙니다. 두 가지 큰 대조. 먼저 한편으로는 의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6절은 그 자체로 작은 대조 평행법으로 그것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음, 후속 조치를 위한 몇 가지 참고 사항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처럼 이것들은 진실을 표현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선, 시의 가치에 관해 우리가 이미 말한 모든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여기서 세 번째 요점으로 이끈다. 당신이 무언가를 다시 말할 기회가 생기면 ,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좀 더 잘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우리가 좋든 싫든 일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배우고 흡수하기 위해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한 번만 말하면 대개 그것을 놓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경멸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마음이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번 말하면,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아, 아시다시피 시험을 위해 그 블레셋 도시를 배우는 것이 정말 좋은 생각이 될 것입니다

. 나는 지금 이 말을 서너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등록하는 거 맞죠?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수요일 시험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를 통해 같은 단어를 반복할 수는 없지만 지루해지며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의어를 사용하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개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조금 더 잘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는 동의어적 평행법이든 반대 평행법이든 상관없이 진실을 실제로 전달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조법 , 우리는 이것과 이것 사이를 분별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것은 대조가 하고 있는 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준 이탤릭체로 표시된 것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번역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도전적인 기업입니다. 외국어를 전공하는 여러분은 한 언어의 내용을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진리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송가 본문에도 진리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직도 가끔 찬송가를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독일 합창곡을 번역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번역한 사람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기본 의미를 유지하고 그 의미를 독일어에서 영어로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 맞는 운율과 리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독일어의 일부를 보면, 음악의 운율과 리듬에 맞도록 흥미로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영어 번역과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 시에서는 운율과 리듬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개념적 병렬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 세계의 모든 언어족에게 전파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으며 일부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소리의 미묘함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놀라운 메커니즘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주요 특징이다.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척추 뒤쪽으로 떨림이 오르내리게 해야 합니다. 자, 뒷면입니다. 척추 위아래로, 알았죠? 원한다면 그것은 매우 독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쎄, 그것은 독특하지 않습니다. 다른 셈족 언어에서도 평행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 시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로 선택하신 구약의 진리의 큰 부분입니다.

좋아, 내가 그 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게 했나요? 좋은 평행성은 아니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히브리 시에 관해 몇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좋아, 간다. 여러분 중 일부는 비유적인 언어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이 예제를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후에 참조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의인화는 추상적인 특성이나 개념에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쩌면 동물의 특성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보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바다는 일반적으로 그렇게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보고 도망쳤다. 조던이 돌아섰다.

산들은 숫양처럼 뛰었다. 그리고 언덕은 시편 114편의 양들과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군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려면 상상력을 조금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조금 더 크고 더 큰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느니라.

즉, 이것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다. 모든 자연이 그러한 기쁨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다야, 네가 어찌하여 도망쳤느냐? 오 조던, 돌아섰다고? 숫양처럼 뛰어다니는 산들아 ? 당신은 양을 좋아하는 언덕입니까 ? 오 땅이여, 주님 앞에서 떨지어다 .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므로 너희는 이런 일을 표현으로 삼는다.

또 다른 비유적 언어인 은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은유와 직유는 모두 특이한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전문 용어에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말하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죠? 내 말은 ,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래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비유입니다. 다양하고 잡다한 것들에 수반되는 짐들을 다 버리고, 그것이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반석이십니까? 웃고 있구나, 잭.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생명이 없고, 지루하고, 죽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나무 등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또 뭐야? 그건 그렇고, in과 같은 우리의 맥락에서도 올바른 단어는 무엇입니까? 성경적 진리에 의해 주입되거나 영향을 받으면 모호함이 있을 것입니다. 응, 진저. 좋아요, 지속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실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 상태.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기초, 즉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발가락이 부딪혀 넘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통을 일으키는 것? 이사야도 거기에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신학을 반석처럼 풀어볼 시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은 또한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내 주위의 방패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보호가 필요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약간 보호되어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종종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시편에서 하나님은 방패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편으로 돌아가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직유와 은유의 유일한 차이점, 또는 적어도 가장 쉬운 차이점은 직유가 실제로 like 또는 as라는 단어를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명확한 비교를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물이 심은 아름다운 이미지, 계절에 맞는 나뭇잎, 열매 맺는 것, 그리고 직유의 일부이기도 한 모든 것들을 묘사합니다. 좋습니다. 추가 특성입니다. 자, 몇 가지만 더 해보자.

아크로스틱. 아시다시피, 우리가 히브리 시, 즉 성서 히브리 시에서 쌍극체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연속적인 글자로 시작하는 시의 각 줄의 첫 번째 단어인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여덟 절이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Aleph)로 시작하고 다음 여덟 절은 베이트(Beit), 다음 여덟 절은 기멜(Gimel) 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절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그리고 당신은 '아, 그거 정말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은 그곳의 이상적인 여성에 부응할 수 없는 여성에 대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언을 이야기할 때 다루겠습니다. 그것 역시 잠언 31장 10 절부터 시작해서 이 장의 끝까지 이어지는 연속문입니다. 애도에는 곡예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X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에서 Z까지, 원하신다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Aleph에서 Tav 까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만 사용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자 X로 시 한 줄을 시작할 수 있다고 여덟 번 생각해 보세요. X와 같습니다. 즉, 이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의 한 줄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는 X와 아마도 Z와 동등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각 글자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여덟 줄의 시를 구성했습니다. 시편 119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 있나요? 생각. 아, 시편 19편을 생각하고 계시군요.

글쎄요, 시편 19편은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119입니다. 여기에는 그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Kate를 향한 모든 구절에는 더

많은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계명, 증거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충족성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의 집중 시간이 조금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의미로 읽어야 하며, 그것이 시편 기자가 그 창공 전체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삼행체를 사용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좋아요, 다른 몇 가지만요. 이것은 또한 문제 아이디어의 전체 범위를 따릅니다. 번호가 매겨진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예로서 시편 62편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 이 중 대부분이 실제로 잠언에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요 내가 들었던 것이 두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

잠언 30장에는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이러하고 저러합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섯 가지와 심히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그 일곱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 읽은 바에 따르면, 거짓말과 허위와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특정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이 있으며, 그에 대한 일종의 질서 감각도 제공합니다. 글썄요,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편 자체를 살펴보기 전에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시편 소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것들은 주로 다윗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시편의 멋진 점 중 하나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말. 그리고 그것은 특히 오늘 강의를 마칠 때 더욱 분명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패턴, 즉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즐겁습니다. 그에 어울리는 시편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당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정말 화가 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당신은 불안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제가 말했듯이, 우리의 배움을 위한 패턴이자 패러다임입니다. 단순히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처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이 시편의 저자가 단지 백합처럼 옳다고 말하는 우유 토스트 유형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느끼고 표현해야 하는 종류의 것들에도 매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매우 도움이 됩니다.

글쎄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제목은 시편 자체 앞에 나타나는 작은 글씨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시편 원본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시편 제목이 실제로 1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편 버전이 히브리어와 영어로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본문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에게 다소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제목에서 우리가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요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시편에 제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번 David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고전적인 그림입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나단이 다윗과 대결한 이후의 끔찍한 상황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제목입니다.

시편 51편의 첫 번째 줄은 이 시편이 이때에 기록되었음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시편 제목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모든 제목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문의 일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의 예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의 70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다른 것들도 주목하십시오.

아삽이라는 사람은 매우 의미심장한 시편을 썼습니다. 그 중 다수는 예루살렘과 시온 산, 그리고 성전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겪은 황폐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 자체를 다루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부당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아, 그게 왜 좀 특이한가? 고라 자손이 시편의 저자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음. 고라는 누구입니까? 케이티. 그렇죠,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특히 고라가 제사장 계통을 원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사람들은 땅이 열리자 삼켜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민수기 26장에서도 고라의 가계가 모두 멸망한 것은 아니라는 암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아름다운 점은 고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언급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반복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가 행한 일 때문에 고라의 후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들은 복직된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게 될 사람들이며, 심지어 시편의 일부를 지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매우 흥미로우며, 하나님의 자비, 절대 자비, 용서를 나타내는 시편 제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있고, 모세가 있는데, 그들 각각에 한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모릅니다.

이 시편 제목들도 읽으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기 온, 그게 뭐야?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들은 아마도 음표일 것입니다. 연주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내용이 노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수업을 시작할 때 그 중 일부를 노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경력 중 어느 시점에서 당신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직업은 아마도 여기서 사용하기에는 잘못된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장로교 교회나 시편을 부르는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맛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배울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작은 구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를 부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정말 멋진 경험이에요. 글썄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다섯 권의 시편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모세오경 5권과 매우 유사하며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작성되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 개를 기억하세요. 저는 네 손가락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도 셀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세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토라(Torah)로 T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은 네비임(선지서)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사기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미안해, 조슈아, 제대로 해봐.

세 번째 부분은 케투빔(Ketuvim), 즉 저작물로, 시편인 시편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그것을 시작할 때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토라를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출발하지 마십시오.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시편 1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좋습니다, 토라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글쎄, 우리가 기록하고 싶은 시편의 몇 가지 기본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시편 전체에 걸쳐 나오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계속해서 또 다시 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나요? 시편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모든 위엄,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전능한 일들, 그분이 그들을 위해 반복해서 행하신 일들 속에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히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 훌륭하고 심오한 감각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유일한 것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노래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변함없고 충성스러운 사랑. 이는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헤세를 행하고 계십니다 .

또한 계속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추가 용어도 있습니다. Emet은 진실이며 관련 단어인 충실함, emunah입니다 . 진실과 신실함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시편 103편을 볼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아름답고 아마도 잘 알려진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토라의 목적,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인류의 죄성을 보여주는 목적 사이에 약간의 유사점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같은 종류의 일을 예시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의 죄성. 죄 많은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회개, 둘째로 구원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인간 저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어쩌면 적들로부터의 구원, 어쩌면 자신의 죄와 죄 많은 자아로부터의 구원을 부르짖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와, 그거 흥미롭지 않아? 시편에서.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자주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다른 것들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흠 하나 없이 완벽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결심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럼, 토라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훈은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 그렇죠. 여기가 식료품 목록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부분이므로 몇 가지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시편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토라의 세 가지 범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논의한 것처럼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 유형의 시편에는 특정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고 각 범주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다음 대표적인 예를 알도록 권장합니다.

즉,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가 각 카테고리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몇 가지 카테고리도 추가하겠습니다. 우선 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는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한 큰 괴로움과 고뇌,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애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애도일 수 있습니다.

공동 애도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땅의 맥락에서 찢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음에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암울해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42편과 43편을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편을 주의깊게 읽어본 적이 있다면, 이 두 시편이 함께 오고, 두 시편 모두에 같은 후렴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낙심하느냐? 애도하는 사람은 계속되는 일입니다. 137장은 아마도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끔찍한 상황을 애도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예일 것입니다.

자, 일종의 관련 카테고리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 다음 묶음을 개인적인 애도와 함께 넣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즉 참회하는 시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참회는 회개와 관련이 있으며 죄에 대한 극심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20세기 초 프린스턴 출신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벤저민 워필드(Benjamin Warfield)가 말했듯이, 참회의 시편을 쓴 사람은, 51편의 경우에는 아마도 다윗일 것인데, 자신이 거의 상실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전 생애는 죄, 고의적인 죄,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결과로 거의 상실되었을 뻔한 것입니다. 참회의 시편은 내가 유일한

희망은 내가 십자가 아래에 던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에 누군가가 올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기독교 현장을 통해 다가오고 있지만 사순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엉망이야, 난 이걸 완전히 망쳤어, 신이 필요해'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편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51, 32도 해당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약간의 어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 시편, 놀라운 찬양 시편,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드리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조금 긴 시편입니다. 그 중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실제로 인용되는 호산나입니다. 사람들이 올라갈 때 주님의 이름이 찬미받으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옳게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좋아요, 그리고 찬양의 찬송을 부르세요. 즉, 시편 8편이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이다.

물론 이것은 시편 기자가 창조의 위엄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와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은 신약에서도 인용되는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놀라운 일,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흥미롭게도 시내산에서 그에게 속박시키셨습니다.

시편 78편은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하십시오. 즉, 이 시적 형식을 사용하여 단지 주님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는 다음 세대에도 진실을 전달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편 78편은 그것으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는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시편 84편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읽어야 하는데, 그거 알아요, 시간 문제거든요. 음악 전공자이시거나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를 아시는 분들은 최근 그의 노래를 조금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아정이 5월 콘서트에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브람스는 레퀴엠도 작곡했습니다. 물론 레퀴엠은 일반적으로 죽음의 맥락에서 제시되는 것이지만, 브람스가 그의 레퀴엠 텍스트에서 만든 일탈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시편 84편이 시편 84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거처가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께 힘을 얻어 순례 여행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즉 시온으로 가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라. 10절: 주의 뜰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으니이다. 이 사람은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전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노래합니다. 좋아요, Songs of Trust, 23. 그리고 우리도 이것도 알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좋은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왕에게 좋은 인물입니다.

그들은 또한 멍청한 양들을 위해 매 순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미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좋아요, 이것들은 이 문제를 다루는 많은 학자들이 제안한 몇 가지 중요한 분류입니다.

우리에게 추가하고 싶은 것이 두 개 더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아,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피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말을 듣는 것이 지겹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길게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바로 다윗의 성입니다. 이것이 다윗 성이 바로 이곳에 포함된 전부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당신이 바라볼 때, 특히 바로 이쯤에 서 있다면 당신은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에는 산들이 있고, 남쪽에는 기드론이 있고, 서쪽에는 남산이 있고, 서산과 힌놈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쪽에 있는 산들이 있고, 심지어 성전산까지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시온산에 오르는 것은 시온산이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편 두 편은 맛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눈을 들어 언덕을 바라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시편은 즐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지리적 맥락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차원이 펼쳐집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25편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 시대의 작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지금부터 영원히 그의 백성을 둘러싸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산은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테고리.

나는 메시아 시편인 시편들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제 그들 각각은 구조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름부음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 메시아(Mashiah)는 히브리어 마시아흐(Mashiach)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기름으로 바르다, 기름으로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사람이고, 크리스토스는 그리스 사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부음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특히 첫 번째 성서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일부 선지자도 있지만 특히 왕과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메시아 시편은 두 편이 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 두 편입니다. 먼저 시편 22편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을 때 이 시편은 어디에서 언급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순간 인간의 모든 죄와 삼위일체 사이의 형언할 수 없는 분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성자 하나님에게도 등을 돌리셨습니다. 사순절을 위한 완벽한 묵상.

물론 그것이 시편 22편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 부분입니다. 청중, 또는 적어도 그들의 텍스트를 아는 사람들은 나머지 부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가 그를 기뻐하시므로 그를 구원하게 하라.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는 군중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겠습니다(16절).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찢렸습니다. 나는 뼈를 셀 수 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따라서 원래 다윗의 시편이었던 이 시편의 여러 측면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 일부이자 핵심이었던 모든 사역에서 완전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 두 편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편도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알고 있는 멜기세덱의 인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편은 왕의 모티프를 매우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반대자들과 대결할 때 여러 번 인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아적 언급이다.

주님은 내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반대자들에게 도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왕적인 측면만은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맹세하셨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 곳은 구약에서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전에 말했듯이, 창세기 14장과 함께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장을 함께 끌어 예수님과 멜기세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멜기세덱은 확실히 위대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고승.

다시 말하지만, 더 많은 메시아적 시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범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시편입니다. 다르게 발음하고 싶다면 저주의 시편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인이 되고 싶은지 영국인이 되고 싶은지에 따라 다릅니다. 저주의 시편이란 무엇입니까? 이 중 하나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비난은 무엇입니까? 장담하는데, 당신은 당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시편입니다. 현재 110에 있으므로 199까지 백업하고 그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악하고 속이는 자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열었나이다 그들이 거짓 혀로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에워쌌나이다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인지를 말합니다.

그가 6절에서 시작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를 반대할 악한 사람을 임명하십시오. 사탄을 놔두십시오. NIV에서는 고소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사탄(Ha-Satan)은 미안하다, 하 사탄(ha satan)은 사탄(satan)이 아니라 히브리어이다. 그가 재판을 받으면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의 기도가 그를 정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그를 그냥 죽여 주시겠습니까? 글썄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폐허가 된 집에서 쫓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그는 선을 행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였느니라.

그는 저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분량에 맞는 형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지만, 시간이 거의 10 시가 되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척도 대 척도의 정의를 명심하세요.

시편 기자는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저주를 옷으로 입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대하시도록 요청받고 계십니다. 자,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 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이것이 강의를 끝내는 정말 실망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의 일부입니다. 즉, 우리는 가위를 들고 잘라서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 있어요.

그들은 거기에 있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글머리 기호에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불의가 자행되는 이런 종류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 우리는 칼을 들고 나가서 누군가의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면 우리는 온갖 종류의 물건을 여기저기에 퍼뜨리는 식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전체를 읽으셨을 때, 제가 말했듯이 다른 시편도 있습니다. 140편과 그 다음에는 다른 시편의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점을 이해하셨나요? 이것은 시편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불의를 처리해야 하고, 그저 악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은 큰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자신도 죄인이며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맥락에서 다른 사람은 그들 모두가 살고 있는 언약의 의무에 완전히 반하여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시편의 일부는 사도행전에서 유다가 언급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의 타락에 대해 결코 기뻐하지 않고,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대우와 징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회개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과 전망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지만 예배당에 가서야 합니다. 그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모두 시험 준비를 하세요.